

‘비수도권 확산→전국적 유행’ 현실화

거리두기·방역강화에도 불구 이동량 늘어

“앞으로 확진 판정 더 받을 가능성 높다”

지난주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초기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주말이 고비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그 주말이 지난자 방역당국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51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36명은 지역에서 발생했고, 15명은 해외에서 유입됐다.

문제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신규 확진자가 대전을 거쳐 광

주까지 퍼졌다는 점이다. 광주에서 발생한 12명의 신규 확진자는 집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같은 추세는 이미 지난주 예견됐었다. 지난달 2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며 “이를 어떻게 잘 막는 지가 전국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과 충남, 전북의 경우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결과적으로 그 주를 넘긴 현 상황에서는 고비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과 증상 발현, 검사까지 3~4일이 걸린다고 봤을 때 광주 내 확진자 증가는 이날이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광주 광륵사 관련으로 신도와 승려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주 후반 김염된 사립들이 이날부터 방역통계에 접혔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야외 노출이 많은 주말을 통해 감염된 의심환자가 앞으로 확진 판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의 거듭된 거리두기 호소와 방역강화에도 이동량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20~21일 수도권 버스 이용객수는 전주보다 20만5000건 늘어난 1147만4000건으로 4월 초 조사 아래 최대치를 넘어섰다.

지하철 이용객수도 21만건 증가한 812만8000건을 기록하며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전주보다 566만9000건 늘어난 7315만3000건을 보여 8.4% 증가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 이후 7주만에 최대치다.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와 생활방역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수도권 확진세가 더 맹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이슬 기자

제2의 대구되나…광주 코로나 확진자 무더기 발생에 ‘공포’

사찰·교회·오피스텔·제주 여행 등 전파경로 다양



1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노인복지시설 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시설은 전날 한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폐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주에서 확진환자가 겹겹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을 넘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사랑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하고, 어제 밤 사이 7명이 추가되는 등 최근 5일 동안 광주에서만 30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눈덩이처럼 불

어나는 형국이다.

또한 사찰과 오피스텔, 제주 여행자, 교회 등 확산 경로가 다양할 뿐 아니라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는 지난 3월31일 발생한 광주 24번 확진자가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마지막 확진자로 이후 88일 동안 지역전파에 따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가 제2의 대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날고 있다.

지난 1일 <뉴스1>이 만난 광주 시민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지역확산을 경계했다.

주부 김모씨(45)는 “뉴스를 보기가 무섭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광주에서는 간간이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해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았

는데 대구처럼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친지와 주변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코로나 환자 동선과 겹치는지 물어보고 있다”며 “이제는 진짜 코로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한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문모씨(44·여)는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힘이 빠진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감만 더 생긴다”면서 “주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걸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걱정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정 기자

경찰, 목포 도서관 압수수색…전남교육청 산하 세번째

암막스크린 비리 수사 후 교육시설 납품수사 확대

교육시설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목포공공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1일 전남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전날 목포공공도서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관련 서류 일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납품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3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도교육청과 암막스크린 납품업체

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말에는 도교육청 본청 시설과 및 재정과, 나주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6월 압수수색은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의혹과 연관되며, 이후 추가로 진행된 2·3차 압수수색은 교육시설 납품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의 뇌물수수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목포공공도서관까지 연이어 압수수색을 받게 돼 직원들의 충격이 크다”며 “수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업무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의정부 오피스텔서 20대 여 숨진채 발견

지난 1일 낮 12시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4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서울 도봉구의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정부 시내 한 오피스텔에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학생 아들 학대…날마다 작두타기 시킨 母

중학생 아들에게 날마다 작두타기를 가르치고 신내림을 강요한 어머니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중학생 A군 어머니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A군은 학교 담당 교사에게 날마다 어머니와 산에 올라 작두타기와 줄타기 등을 배우고 신내림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교사는 어머니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해 여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아동학대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승중 아우디, 이반떼 추돌…1명 숨지고 4명 부상

경기 여주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승 주행 중인 아우디가 앞서 달리던 이반떼 후미를 충격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지난 1일 여주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8분께 여주시 대신면 국도37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씨(40대·남)가 몰던 아우디가 B씨(50대·여)의 이반떼 후미를 들이받았다.

갑작스러운 충돌 여파에 이반떼는 도로 옆 용벽을 충격한 뒤 중심을 잃은 채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반떼 뒷좌석에 탔고 있던 C씨(50대·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B씨와 조수석 탑승자 D씨(50대·여)는 중상을 입었다.

아우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E씨(40대·남)는 경상이다. A씨는 당시 승용차를 구매하기 전 시승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블랙박스나 인근 CCTV 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EDL 등 아우디 내부 전자장치 감정을 통해 당시 속도 등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64)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보행자 B씨(63)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